



광주·전남 1004명 '광주평화선언' 광주·전남 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의 주요인사 1004명은 27일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담긴 '광주평화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남북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남북간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삼성 비판’ 김용철 변호사 강연 장소 제공 불허

조선대 ‘운동권’ 이미지 벗기?

학생 취업 우선 ‘실용주의’

조선대가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의 강연 장소 제공을 불허한 이유는 뭘까?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전남대 학생행진'·'진보신당 광주시당' 등은 27일 오후 7시 조선대 서석숙 3층 대강당에서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 초청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이들은 지난 18일 조선대 인문대학 생희 명의로 서석숙 대강당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조선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은 행사 신청자가 인문대학생회라는 점을 들어 서석숙 대신 인문대 시설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애초 인문대 행사였기 때문에 서석숙을 제공할 필요

가 없어 인문대 강의실을 이용하라고 했다"면서 "김 변호사 초청 강연을 허가하거나 불허한 차원이 아니라 서석숙 대관을 해주지 않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전남대 법대에서 강연회를 가진 바 있다. 앞서 조선대는 지난달 5·18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로부터 기념행사 전국 순례객 숙소로 체육관을 대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가 며칠 후 체육관 대신 생희 건물을 제공했다. 당시 거절이유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 학교 안팎에서 조선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중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면서 예전의 '운동권' 학교라는 인상에서 탈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 비자금 폭로로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온 김 변호사의 강연이 불려올 수 있는 부담 때문에 장소 제공을 거부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의 경향은 조선대의 계획된 정책 변화라기 보다는 20여년의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학교·학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구성원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 새 학교 구성원 사이에 학생과 학교 이익을 고려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묵언수행 중 골 터지면?

28일부터 하안거... 산사들 '월드컵 응원' 고민

선거 투표는 거주지서

28일부터 하안거(夏安居)에 들어가는 산사들이 내심 고민에 쌓여있다. 오는 8월24일까지 3개월간 계속될 하안거와 6·2 지방선거, 월드컵 기간(6월11일~7월12일)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120여 곳 선원(禪院)에서 2300여 명의 수좌(首座·참선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안거에 참여한다. 참선을 중요시하는 불교계의 큰 행사인 안거 중엔 선방에 불이 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게 원칙, TV 시청이나 신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 스님들은 투표를 어떻게 할까? 답은 "일반인처럼 거주지에서 투표한다"다. 송광사 측은 "부재자 투표가 있고 안거 중일지라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 신청이 타지역으로 되어있는 스님을 제외하곤 선거 당일 투표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 한국인이 열리는 날에는 사람에서도 '조용한 응원전'이 예상된다. 해남 대흥사측은 "하안거 기간 동안 스님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행에만 정진하게 된다"면서도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중공사(大衆公事·모든 스님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일)를 통해 선거나 월드컵 관련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행에만 정진하자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장성 백양사는 지난 2002·2006년 월드컵 시청을 금지했었다. 한편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지난 26일 하안거 결재일을 맞아 "문수처럼 뭔가 한 마디 자기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도록 90일 동안 율행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격려법어를 내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안거(安居)=불교에서 스님들이 하절기와 동절기 3개월 동안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것. 부처가 우기(雨期) 동안 기어나오는 벌레를 죽이지 못하도록 돌아다니는 것을 금하면서 유래했다.

어린이공원 7곳에 방범용 CCTV 설치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공원 7곳에 방범용 CCTV가 시범설치된다. 광주시는 27일 "노후한 단독주택 지역 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헛터조성공사를 벌이면서 각종 범죄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원터로 조성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CTV가 설치되는 곳은 ▲서구 내방어린이공원 ▲남구 봉선어린이공원 ▲북구 샛터어린이공원 ▲북구 버들어린이공원 ▲북구 그린어린이공원 ▲광산구 비아 제3어린이공원 ▲광산구 우산 제9어린이공원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1분, 해질 19시 39분, 달뜨기 20시 11분, 달지기 05시 06분. 식중독 주의!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다. 전국 날씨 지도와 지역별 기온, 파고, 조수, 일출/일몰 시간, 주간 날씨 예보가 포함된 날씨 정보 페이지.

서울대 입시 무리한 스펙쌓기는 역효과

입학사정관 선발 기준 공개: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기준과 준비 방법이 27일 공개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snu.ac.kr)에 게시됐다. 가이드라인은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한 학업능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 교과서에 충실하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관련 서적을 찾거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 과정에 없는 여러 가지 스펙으로 자기소개를 채워 봤자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고교생활동안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를 평가해 '잠재력'을 측정한다. 자기소개서는 지원 동기와 고교 시절 동안 기울인 노력,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는지 사정관에 보여줘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나 일화를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써야 하며 감정에 호소하거나 상투적, 추상적 문구로 작성하는 것은 금물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광역시 관광안내소, 송로시터 송도, 서울어스 캐주얼: 송로시터 송도 광고와 서울어스 캐주얼의 5월 31일부서(최신형) 관리서비스 광고가 포함된 배너.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빙수 리모델링: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빙수 리모델링, 인테리어, 건축 자재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소개를 담은 광고.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량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소개를 담은 광고.